

완도무역항 관광객·화물수송 실적 확 늘었다

국가관리항서 지방관리항 전환 이후

지난해 111만명·물동량 230만t 급증세

완도무역항이 지난 2010년 국가관리 무역항에서 전남도가 관리하는 지방관리 무역항으로 전환된 이후 관광객과 화물 수송실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완도항에서 제주, 청산 등을 방문한 관광객 수는 111만 명으로 2011년보다 113% 늘었다. 화물수송량도 230만t으로 전년보다 130% 증가했다.

관광객과 물동량의 동반 증가는 수산물 판매 촉진과 음식숙박업소의 소득증가로 이어져 완도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는 100분 만에 제주에 닿을 수 있는 고속선 '블루나래'호 취항과 청산도 슬로시티 지정에 따른 관광객 증가, 해남~완도 간 국도 13호선 4차선 확장으로 인한 접근성 개선 등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4월 청산도 슬로시티 축제기간 중 완도항을 방문하는 관광객 불편을 줄이기 위해 완도군과 해운조합, 여객선사 등과 함께 불편사항 발굴과 개선을 위해 상호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운항시간 변경에 대한 예약자 문자 발송 안내는 물론 차량선적 시 일괄 결제, 상수기 임시대표실 확대 운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앞으로 완도군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완도여객터미널 신축과 어선정박시설 축조공사, 남방과제 보강, 해양부두 건설 등 4대 사업에 840억원을 투자해 완도항을 관광 미항, 향만 물류기지로 도약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순만 해양항만과장은 "앞으로도 완도항을 이용하는 관광객과 화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친절한 서비스, 빠르고 섬세한 민원해결로 다시 찾고 싶은 완도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신안 천일염 올 생산 돌입

신의도서 28일 첫 채염식 행사

신안군 신의도의 명품 천일염이 오는 28일 채염(採鹽)식을 갖고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간다. 신안 천일염 생산량의 22%를 차지하는 신의도에서는 오는 10월15일까지 소금을 생산할 예정이다. 채염식은 염전에서 소금을 채취하는 전통의식으로, 생산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명품 천일염 생산 결의문 낭독을 시작으로 풍년을 기원하는 풍악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치러진다.

신의도는 전국 최대 규모의 천일염 생산지로, 염전 면적은 537ha에 이르며 생산업체 233개로 매년 5만1000t의 천일염을 생산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소금만 팔

아 약 3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지난 2008년 천일염이 광물에서 식품으로 바뀌면서 염전을 친환경 시설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전체 염전의 절반 가량의 시설 개선을 완료했다. 군은 오는 2015년까지 모든 염전의 시설을 친환경적으로 바꿀 방침이다. 채염식은 같은 날 신의도는 물론 충도, 임자도, 도초도 등에서도 열린다.

신안군 관계자는 "좋은 소금을 생산하겠다는 의지를 군민들과 함께 확고히 하기 위해 채염식을 마련했다"며 "전국이 아닌 세계에서도 품질을 인정받는 천일염을 생산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목포 삼향동에 도·농복합형 주말농장 개장

목포시 삼향동이 새봄을 맞아 도·농 복합형의 지역 특색을 살려 농촌체험 '2013 전원마을 삼향동 주말농장'을 개장한다. 삼향동은 그동안 주말농장 농지를 확보하지 못했으나 올해 주민자치위원 소유의 산계마을 유휴농지 1400㎡의 밭을 새롭게 갈아 조성했다.

주말농장은 4월부터 11월 말까지 8개월간 운영된다. 주말농장 분양은 1가구당 15㎡(4평). 주말농장 참여자 모집은 50여가구다. 목포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27일까지 삼향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주말농장 참여자는 고무마, 방울토마토, 상추, 옥수수, 파 등을 친환경농법으로 자를 재배할 수 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장대한 호남정맥이 한눈에

지난 23일 해남 두륜산에서 바라본 장흥 제암산, 광주 무등산 등 호남정맥의 장대한 산줄기. 이날 모처럼 맑은 날씨 속에 관광객들은 지리산 천왕봉, 남해 금산은 물론 제주도 한라산까지 볼 수 있었다.

<남도산악연구소장 천기철씨 제공>

함평경찰, 가정폭력 예방

'찾아가는 상담' 화제

함평경찰서 읍내파출소가 최근 가정폭력이 증가하자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상담'을 펼쳐 화제가 되고 있다. 상담에는 가정상담센터 직원 3명과 경찰관이 참석하고, 이달 들어 112 신고를 통해 가정폭력 신고를 한 가

정폭력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실시한다.

함평읍내파출소 관계자는 "4대악 중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가정상담센터와 연계하여 가정폭력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들에게도 찾아가는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함평=황은희기자 hwang@

'군민의 날' 슬로건 공모

해남군, 오는 29일까지

해남군이 오는 5월1일 개최될 제40회 군민의 날 행사를 앞두고 공식 슬로건을 공모한다. 슬로건은 군민의 힘을 결집시키고 해남군의 비전이 담긴 15자 내외의 문장으로, 군민이면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다. 응모기간은

오는 29일까지이며, 우편 또는 전화로 접수할 수 있다.

응모된 슬로건은 심사를 거쳐 최우수 1점과 우수 2점을 선정하며 당선자에게는 소정의 상품권을 증정한다. 한편 해남군은 지난 2011년 제38회 군민의 날 행사부터 슬로건을 사용했으며, '하나된 땅콩 해남 도약하는 희망해남'이 당선된 바 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kwangju.co.kr

동학혁명 120주년 행사 박차

정읍동학연구, 학술연구·출판물 간행 등

(사)정읍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산하 동학역사문화연구소가 내년에 동학혁명(1894년) 12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를 연다.

연구소는 25일 "최근 정읍시에 전국 규모의 협의체인 '120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정읍시, 준비위원회와 행사를 공동 기획해 대규모 기념행사를 열고 동학혁명의 반향을 알릴 방침이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연구소는 지역 내 혁명과 관련된 역사문화 과제를 발굴하고 혁명 선양을 위한 공동 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12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연구, 출판물 간행, 서적 편집 및 발간도 하기로 했다.

유종국 소장은 "전 국민이 공감하고 계승 발전시킬 동학의 참여사를 알리기 위해 120주년 기념식을 열기로 했다"며 혁명 선양사업도 적극 발굴·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전주 당구장·노래연습장 경영난 심각

당구장을 절반이상 문닫아

전주지역 당구장 등 체육시설업소와 노래연습장 등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고 있다.

전주시가 25일 체육시설업소와 노래연습장 등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233개였던 당구장은 올해 3월 현재 112개로 절반 이상 대폭 줄었다.

5년 전 185개였던 당구장은 매년 꾸준히 증가, 작년에 233개까지 늘어

났으나 경쟁 과열로 절반 이상이 폐업했다. 골프연습장도 작년 81개에서 74개로, 체육도장도 123개에서 104개로 감소했다.

노래연습장 역시 작년 285개에서 281개로 4개 업소가 문을 닫았다.

이처럼 대중 여가 시설이 감소한 것은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경쟁 과열로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폐업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주=강철수기자 knews@

남원농협 등 5개 농협 10억 출자 공동사업법인 출범

남원농협, 춘향골농협, 지리산농협, 운봉농협, 남원원예협동조합 등 5개 농협이 자본금 10억원을 출자해 설립한 남원시 조합공동사업법인이 농림부 설립인가를 받고 25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금지어 소재 춘향골 농협 산지유통센터 2층에 사무실을 개소한 남원시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대표이사 5개

참여자조합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근무하며, 남원시로부터 농산물 공동브랜드인 '춘향에인'의 사용권과 관리권을 위임받아 승인 권한을 갖는다.

현재 남원시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통합마케팅 라인을 통해 '춘향에인' 박스로 포장돼 출하되는 농산물은 딸기, 파프리카 등 13종이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전북

남원 대표농산물 '춘향애인' 납시오

시, 포도·파프리카 등 공동브랜드 홍보 주력

남원시는 24일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공동브랜드인 '춘향애인(愛인(사진))' 알리기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남원시는 지상파·인문매체를 통한 남원농산물 공동브랜드 '춘향애인' 홍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표 농산물인 포도, 파프리카, 멜론, 상추, 오이와 미스 춘향을 배경으로 하는 홍보물을 제작했다.

명예홍보대사 연예인을 활용한 홍보물을 제작해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농협 매장 이용객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홍보활동도 펼치기로 했다.

커피파자간 종이컵을 이용한 자연스러운 홍보도 추진된다.

시는 종이컵 제작업체와 계약을 맺고 '춘향애인' 브랜드가 인쇄된 종이컵을 생산해 전국에 공급할 계획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홍보도 주력한다.

남원시는 '남원 1박2일 애플의 친구 맺기'를 통해 '춘향애인'을 홍보할 방침이다.

시 홈페이지에도 '춘향애인' CF를 링크해 홈페이지 방문객이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차량용 스티커도 제작해 남원시민과 재외향우, 공무원, 농업인, 농업관계자 차량에 부착해 간접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각급기관과 업소에 '춘향애인' 스티커를 부착해 관광·방문객에게 남원농산물 공동브랜드를 각인시킬

계획이다.

남원시에는 그동안 40여 개의 농산물 브랜드가 난립해 소비자에게 남원 농산물의 우수성을 심어주지 못하는데 대응할 3일까지 수감생을 모집한다.

대상자는 마을에서 자생단체 회원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거나 마을만들기 사업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주요 교육과정은 4

개월이다. 남원시에는 그동안 40여 개의 농산물 브랜드가 난립해 소비자에게 남원 농산물의 우수성을 심어주지 못하는데 대응할 3일까지 수감생을 모집한다.

대상자는 마을에서 자생단체 회원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거나 마을만들기 사업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주요 교육과정은 4

개월이다. 남원시에는 그동안 40여 개의 농산물 브랜드가 난립해 소비자에게 남원 농산물의 우수성을 심어주지 못하는데 대응할 3일까지 수감생을 모집한다.

대상자는 마을에서 자생단체 회원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거나 마을만들기 사업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주요 교육과정은 4

개월이다. 남원시에는 그동안 40여 개의 농산물 브랜드가 난립해 소비자에게 남원 농산물의 우수성을 심어주지 못하는데 대응할 3일까지 수감생을 모집한다.

대상자는 마을에서 자생단체 회원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거나 마을만들기 사업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주요 교육과정은 4



남원=백선기자 bs8787@



봄철 입맛 돋우는 봄배추

순창군 북흥면 농민들이 25일 오전 꽃샘 추위에도 봄배추 재배에 여념이 없다. 순창 봄배추 고유의 향이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아 해마다 재배면적이 늘면서 올해는 75ha에서 4800t을 수확, 11억원의 농가 소득이 기대된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kwangju.co.kr

단신

탐방객 안전·구조활동 '내장산지킴이' 발대

내장산국립공원은 25일 "내장산을 찾는 탐방객들의 안전과 신속한 구조 활동을 위해 지난 23일 정읍시 산악구 조대와 업무협약(MOU) 및 내장산 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은 내장산국립공원 내 각종 안전사고·산불 등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명구조 및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한 체계구축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내장산 지킴이는 고지대 접점 지역에서 안전캠페인 및 산행안전교육(자동심장제동장치 사용법, 심폐 소생술, 각종 응급처치법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전주 '마을만들기 리더 양성 아카데미' 개설

전주시는 지역공동체 형성에 앞장설 마을 리더 발굴을 위해 '마을만들기 리더 양성 아카데미'를 개설하고 다음달 3일까지 수강생을 모집한다.

대상자는 마을에서 자생단체 회원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거나 마을만들기 사업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주요 교육과정은 4

월9일부터 총 12강좌로 마을재생 이론수업과 현장학습, 마을자원을 활용한 특성사업 발굴 및 효과적인 주민소통 등 내용으로 구성됐다.

시는 최근 마을만들기 전문가 양성교육인 '마을만들기 코디네이터 과정'을 개설하기도 했다.

/전주=강철수기자 knews@

'건강100세' 위한 '순창군건강장수연구' 창립총회

재단법인 순창군건강장수연구소 창립총회가 지난 22일 건강장수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총회에는 황숙주 순창군수, 한남대 이명숙 교수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발기인 11명이 모여 법인 설립과 건강장수연구소 운영 발전에 대한 사항을 논의했다.

창립총회에서는 정관확정에 관한

결정권, 임원선임의 건 등 총 6개 안건을 처리했으며, 황숙주 순창군수를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지난해 말부터 법인화의 전걸음을 시작한 건강장수연구소는 이제 교육과학기술부의 최종승인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연구소는 건강100세 힐링식품의 연구와 개발에 주력하게 된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군산국가산단 경영자협의회 정기총회

군산국가산단단지 경영자협의회가 최근 한국산단단지공단에서 회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해 신현태 현 회장의 연임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12년도 재무회계 결산 및 2013년도 사업계획(안) 예산승인, 새 회장 선출 등의 안건이 상정됐다. 경영자협의회는 2012

년의 사업성과를 기반으로 2013년에 산단근로자 출퇴근 버스를 기존 10대에서 15대로 확대운영하는 등의 4대 전략 28개 과제를 정했다.

또 경제전문가 포럼, 근로자 숙소 지원사업 등 군산시의 기업경영 환경 개선과 근로자 복지증진 시책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군산=박금석기자 전북취재본부장